



기아 3세대 올 뉴 모닝(위)은 공간, 편의, 연비 등 전 부분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쉐보레 스파크는 북미 시장에서 검증된 안전성과 승용벤 이자트로닉, 이자트로닉, 예코 등 다변화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연비 앞서는 '모닝' vs 안전 검증된 '스파크'

기아자동차-쉐보레 경차 전쟁

모닝, 초고장력 강판 비율 44%... 실내공간 우위 스파크, 이자트로닉 변속기 수동 퍼포먼스 장점

기아자동차가 지난 17일 올 뉴 모닝을 출시하면서 국산 경차 시장에 다시 한 번 불이 붙었다. 2016년 1위는 쉐보레 스파크(7만8035대)였다. 하지만 모닝이 공격적인 마케팅 정책으로 따라붙으며 7만5133대를 판매해 두 차종의 차이는 근소했다. 기아차가 선보인 3세대 올 뉴 모닝은 국산 경차 시장 1위 탈환을 위해 철저부심하고 출시한 야심작이다. 속명의 대결을 펼칠 두 차종의 장단점을 살펴봤다.

기아자동차가 지난 17일 올 뉴 모닝을 출시하면서 국산 경차 시장에 다시 한 번 불이 붙었다. 2016년 1위는 쉐보레 스파크(7만8035대)였다. 하지만 모닝이 공격적인 마케팅 정책으로 따라붙으며 7만5133대를 판매해 두 차종의 차이는 근소했다. 기아차가 선보인 3세대 올 뉴 모닝은 국산 경차 시장 1위 탈환을 위해 철저부심하고 출시한 야심작이다. 속명의 대결을 펼칠 두 차종의 장단점을 살펴봤다.

●경차는 안전이 최우선!

경차는 무조건 저렴하거나 편의장비가 우위에 있다고 선택할 수 있는 차는 아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올 뉴 모닝은 안전성을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초고장력 강판 적용 비율을 기존 22% 대비 2배인 44%로 확대해 차량의 충돌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주요 충돌부위 핫스탬핑 공법 적용, 차체 충돌하중 경로 개선 및 연결구조 강화 등으로 경차 최고 수준의 천정 강도와 차체 비틀림 강성을 확보했다.

전복 등의 상황에서 차량 중량의 몇 배까지 견디는지를 평가하는 천정 강도는 기존(4.3) 대비 14% 향상된

2017 모닝		2017 스파크	
엔진	1.0 SGE ECOTEC 엔진	엔진	1.0 SGE ECOTEC 엔진
배기량	998cc	배기량	999cc
변속기	자동 4단	변속기	CVT, 이자트로닉
최고속력	76마력	최고속력	75마력
최대토크	9.7kg.m	최대토크	9.7kg.m
연비	14.7~15.5km/L	연비	14.3~15.4km/L
가격	950~1400만원	가격	992~1562만원

4.9를 기록했으며, 외부 충격에 의한 차체 변형 정도를 평가하는 비틀림 강성도 기존(13.9) 대비 32% 향상된 18.4를 달성했다.

쉐보레 스파크 역시 안전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 초고장력 강판 적용 비율은 38.70%, 차체 비틀림 강성은 16.5다.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 강점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실시한 2016 신차 평가 프로그램의 안전성 종합 평가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2017년에도 시험이 진행되지 않은 스몰 오버랩 프론트, 리어, 풀 오버 부문을 제외한 전면 충돌, 측면 충돌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공간과 연료 효율성은?

올 뉴 모닝의 전장은 3595mm, 전폭 1595mm, 전고 1485mm, 휠베이스 2400mm다. 스파크는 전장 3595mm, 전폭 1595mm, 전고 1475mm, 휠베이스는 2385mm다. 실내 공간의 크기를 결정짓는 휠베이스에

서 모닝이 약간 앞선다. 스파크는 기아 모닝에 비해 10mm 낮은 전고로 전반적으로 외관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에서 약간 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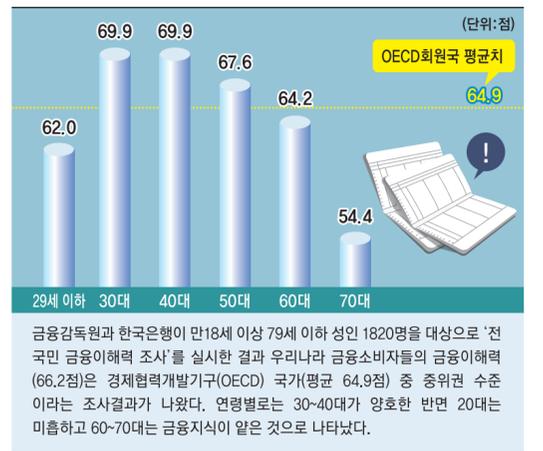
연비는 모닝이 앞선다. 스파크는 일반 모델 연비가 14.3~14.7km/L이고 예코 모델의 연비만 15.4km/L이지만, 모닝은 자동변속기 전 모델의 연비가 15.4km/L이다. 하지만 스파크의 경우 자동변속기의 종류가 C-TECH CVT 자동변속기와 이자트로닉 반자동변속기 2가지다. 특히 이자트로닉은 수동 기어의 싱글클러치 자동변속기로, 자동주행이 가능하면서도 수동의 직결감과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모닝·스파크, 고급차 못지않은 첨단 사양 갖춰

올 뉴 모닝의 안전 및 편의사양을 보면 더 이상 경차 수준이 아니다. 급제동, 급전회시 차량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차시 통합 제어 시스템(VSM)'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했다. 또한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전방충돌 경보 시스템, 7에어백 등 중형급 이상에나 적용되던 첨단 안전사양을 탑재하고 있다. 'T맵'을 차량의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기아 T맵' 서비스와 애플카플레이 등 스마트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강화한 것도 장점이다. 스파크도 전방충돌, 차선 이탈,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한다. 또한 동급 유일의 시티 모드 드라이빙도 장착되어 있다. 시속 60km 이하의 도심 정체구간 주행이나 주차 시에 스티어링 조작을 가볍게 해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추는 기능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데이터로 보는 경제

연령별 금융이해력 수준



한국닛산자동차 신입 사장에 허성중 씨 임명
닛산자동차는 2월1일부터 한국닛산 신입 사장에 허성중 씨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허성중 신입 사장은 2005년 인피니티에 입사한 뒤 한국 및 호주, 필리핀에서 다양한 영업 및 마케팅 직책을 맡았으며, 현재 닛산 필리핀의 마케팅 및 영업, 딜러 개발 부문 부사장을 맡고 있다. 허성중 사장은 닛산의 전반적인 경영 실적 극대화를 위한 전략 개발과 신제품 출시를 책임지게 된다. 특히 닛산 브랜드의 존재감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인피니티 코리아 대표직에는 4월1일부터 인피니티 코리아 영업 부문 부장 강승원 씨가 임명됐다. 기존 인피니티 코리아 대표를 맡아왔던 이창환 상무는 인피니티 호주 대표로 신규 임명됐다. 원성열 기자

한국타이어, 위기관리 표준인증 'ISO22301' 획득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사업연속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국제표준인증인 'ISO22301'을 획득했다. 'ISO22301'은 재해·사고 등 예기치 못한 위기 발생으로 업무중단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핵심업무를 복구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제표준이다. 한국타이어는 글로벌 탑 타이어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위기관리 시스템인 '사업연속성 관리시스템'을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구축했다. 이는 화재나 지진, 정전 등 각종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준비된 복구전략과 매뉴얼을 따른다. 이를 통해 목표기간 내에 핵심 업무와 주요 인프라를 빠르게 복구함으로써 차질없이 소비자 및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 받았다. 원성열 기자

혼다코리아 'Why Honda' 캠페인 진행

혼다코리아(대표이사 정우영)가 혼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체험을 공유하는 'Why Honda' 캠페인을 연다. 이 캠페인은 혼다의 뛰어난 기술력과 성능 등 메카니컬인 스토리 대신, 혼다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진솔하고 따뜻한 휴머니즘 스토리를 통해 혼다가 가진 매력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혼다는 지난 17일 'Why Honda' 브랜드 사이트를 오픈했다. 배우 이진희와 푸드스타일리스트 메이 등과 같은 유명인부터 혼다코리아 딜러 영업사원, 혼다 일본 본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기술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왜 혼다를 선택했고, 그들이 경험한 혼다의 매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원성열 기자



최성진 BC카드 홍보실장(오른쪽)과 전재호 한국소비자포럼 대표가 시상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BC카드

BC카드,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신용카드 부문 1위

BC카드가 제15회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신용카드 부문 1위를 수상했다. 기업·일반 회원을 위한 다양한 카드 상품군 출시(부자되세요 카드 시리즈), 연간 마케팅 진행(빨간날 BC), 브랜드 캠페인 전개(지금하세요 BC), 친환경 소비 생활 지원(그린카드) 등 고객 만족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 최성진 BC카드 홍보실장은 "BC카드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다가간 결과 인지도와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후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해 고객에게 더욱 사랑받는 카드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와 한국소비자포럼이 소비자만족지수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한 소비자 조사다. 각 산업의 브랜드별 선호도와 만족도를 측정하고 금융·가전·식품 등 총 8개 부문에서 1위 브랜드가 선정된다. 정성욱 기자

삼성카드 스테이지 '에센스', 2월18일 이화여대 삼성홀서 공연

삼성카드가 2월18일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삼성카드 스테이지' 일곱 번째 무대 '에센스'를 연다. 실력있는 젊은 아티스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들에게 차별화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문화공연 활동이다. 박진언, 불꽃간사춘기, 정승환 등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검증받은 아티스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노래로 구성된다. 또 '삼성카드 영령 싱 콘서트' 우승자인 무간각의 데뷔 무대가 열리며, 혼자 공연을 즐기는 '혼공족'을 위해 '혼공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카드의 2월28일까지 모바일·온라인 전용 자동차 금융 서비스인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과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하고 다이렉트 오토 할부 또는 장기렌터카 한도를 조회하면 추첨을 통해 총 2017명에게 다이스 공기청정기를 준다. 정성욱 기자

다양한 혜택 BC카드, 유통 특화한 삼성카드...설 이벤트 풍성

하나카드는 해외여행 고객 캐시백 등 제공

'카드사와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카드업체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들에게 나섰다. 자체 이벤트, 유통·해외여행 특화 등 면면도 다채롭다. 우선 자체 이벤트가 눈길을 끈다. 신한카드 '복 나와라 똑딱! 설 페스티벌'이 대표적으로, 2월2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응모하고 10만원 이상 이용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017명에게 5000 마인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K B국민카드는 31일까지 행사에 응모하고 특정 업종에서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총 2017명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현명한 설맞이 이벤트'를 연다.

BC카드의 다양함으로 승부를 띄웠다. 31일까지 사용 실적에 따라 ▲캐리터 인형 ▲5000원 캐시백 ▲전통 고택 숙박권 ▲문화공연 초대 ▲여행상품 최대 7% 할인 ▲미우자 2~3개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가맹점별 설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 및 구매 금액대별 상품권 제공 등의 혜택도 포함돼 있다.



카드업체가 설 명절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로 고객들에게 나섰다. BC카드 모델이 '설맞이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BC카드

삼성카드는 유통 특화로 승부를 걸었다. 이마트·홈플러스·이마트 에브리데이·농협 하나마트·세이브존 등에서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 28일까지 전국 이마트·홈플러스에서 삼성카드로 설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결제 금액에 따라 5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상품권 증정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삼성카드도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 특정 인기 선물세트를 구매할 경우 최대 30%까지 현장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하나카드는 명절 연휴 기간 해외여행 고객들을 겨냥했다. 2월28일까지 하나투어 온라인사이트 및 앱을 이용해 해외호텔 20만원 이상 결제 시 결제금액의 5% 및 최대 5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준다. 고객들이 해외에 나갈 때 더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점·식음료·교통·라운지·호텔·스파·로밍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글로벌 머스트 해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설 이벤트'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고객 혜택 제공을 토대로 단기 실적 강화라는 실질적 이유와 함께 고객 만족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된다. 카드업체 관계자는 "고객들이 설 명절을 맞아 언제 어디서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하면서도 실질적인 서비스로 이벤트를 구성했다"며 "명절 특수를 통한 단기 실적 강화와 고객만족도 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카드사가 준비한 이벤트와 함께 넉넉하고 알찬 설 명절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정성욱 기자 jja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